

원형 잃어가는 목포 갯바위 긴급 대책 추진

풍화작용에 갯 부분 떨어져 균열 따른 붕괴 가능성도 이달 중 연구 용역 발주 보존 방안 등 마련키로

‘천연기념물 500호’인 목포 갯바위가 풍화 침식작용으로 마모·탈락하고 있어 목포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갯바위는 해상 보행교 쪽에서 바라보면 좌측 바위(일명 아버지 바위)의 갯 부분이 풍화작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오른쪽 바위(아들 바위)는 아직도 삿갓을 꼭 눌러 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질학 전문가들은 “용결(溶結)작용과 압축작용을 통해 형성된 상대적으로 연약한 다공질 암석”이라며 “풍랑 에너지가 갯바위 밑 부분을 충격해 미세한 균열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갯 부분이 조금씩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목포시도 바람이나 파도에 따른 침식(浸蝕)작용으로 형성된 갯바위의 갯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유독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만큼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된 해안 타포니 2개 개체 형태의 갯바위는 원래 아버지 바위는 8.1×6.1m, 아들 바위는 8.5×12.4m 규모였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차



천연기념물 500호인 목포 갯바위 전경으로, 아버지 바위(왼쪽)와 아들 바위가 함께하고 있다.

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목포시는 갯바위의 탈락·박리(벗겨짐) 현상도 자연의 신비로운 진화 과정 중의 하나로 판단해 암반의 생성과 퇴화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공적인 보존 작업을 지양해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원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긴급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국비 49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이달 중으로 ‘목포 갯바위 보존 처리 학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복합적 풍화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전문 학술조사 연구는 ▲자연환경 영향, 암석물성, 구조지질 등 풍화요인 분석 ▲갯바위 보수와 보존처리에 대한 방안 제시 ▲갯바위 문화재 활용 및 증장기 보존 개선 방안 제시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5일 “이번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갯바위의 학술적·경관적 가치와 자연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용



풍화작용으로 떨어진 부분
아버지 갯바위의 밑 부분이 풍화침식 작용으로 균열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갯 부분이 균열 탈락한 모습.

역에서 균열에 따른 붕괴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현상유지를 위한 긴급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갯바위는 풍화 작용과 해안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로 인위적 요인 없이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자연 조각품으로, 다른 지역 풍화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특히 목포팔경 중 하나인 ‘立岩返照(저녁노을 빛이 드리운 갯바위 부근의 아름다운 풍경)’로 널리 알려져 있는 등 목포시민의 사랑도 한몸에 받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강도높은 청렴교육 실시

목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목포시 감사실에 따르면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실시해오던 공직자 청렴교육을 연간 4회로 늘리고,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렴 사이버 교육 필수 이수제도를 도입해 6월 말까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이버 교육 과정은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사례로 본 부패영향평가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 등 모두 8개 과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4학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권익위 청렴 연수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한차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담당급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실은 코리아 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청·사업소·동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직원 전화전질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실은 업무인식·응대태도·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우수 3개 부서를 선정·시상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생활임금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혜택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문경연(사진)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목포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시 소속과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시에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의식주 해결 등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자녀의 교육비와 문화·여가 생활비 등이 추가되는 개념이다. 적용대상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목포시장이 결정하게 되며,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9월 10일까지 결정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또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목포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시간급이 7000 원선으로 결정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씩 상향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2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경연 목포시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게 통상적이어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지만,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에서 60개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DJ기념관 무료 전환 이후 관람객 급증

전년동기보다 30% ↑ 젊은층 방문 크게 늘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무료관람으로 전환한 이후 관람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전환 이후 지난 8월까지 관람인원은 7만4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394명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1만3603명, 2월 1만2531명, 3월 1만2141명, 4월 2만3284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황금연휴기간인 지난 5~8일까지 4일 동안 관람객만 6979명에 이르렀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2000명을 넘어섰기도 했다.

특히 무료 전환 후 두드러진 특징은 노인층보다 젊은 층의 방문이 크게 늘었으

며, 방문객의 분포도 강원에서 제주도까지 다양해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기념관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기념관은 무료 전환 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커(중국인 관광객)등 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명호 관장은 “앞으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관은 해마다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와 목포 평화비전 스킨, 김대중 평화문화제,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회, 국제 평화 학술회의, 특별 체험 프로그램(연 4회), 6·15 기념 추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고생들 환경정화 활동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 학생 240여명은 최근 목포시남장애인복지타운과 유달산 조각공원, 죽교파출소 인근에서 잡초제거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했다. <목포해인여고 제공>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북구	광주시내 (062)	전남 (061) · 전북 (063)
	동광 264-2012	고흥군 842-2121
	문흥 266-1960	곡성군 362-8111
	북광주 525-3761	구례군 782-4696
	신안 222-8171	광양시 792-8111
	양산 571-7658	보성군 852-9646
	오치 266-7601	순천시 746-8111
	용봉 522-7752	여수시 692-0997
	우산 512-8116	
	중남 654-2985	중부권
	222-9440	나주시 335-5501
	222-9054	강진군 434-6830
	225-6001	담양군 383-8116
	222-1896	영암군 471-1717
	222-8171	장성군 394-0400
	652-0175	장흥군 863-8822
	651-1833	화순군 374-4423
	675-5530	서부권
	675-6605	목포시 276-9200
	671-7276	무안군 452-8535
	382-5788	신안군 278-8111
	372-2352	영광군 351-1004
	369-0583	완도군 554-6677
	376-7153	진도군 543-0100
	376-6511	함평군 324-8111
	603-0311	해남군 537-6767
	369-0583	전북권
	961-2339	군산시 467-2500
	973-2900	정읍시 531-5544
	959-1500	순창군 652-1920
	944-0444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독자와 함께 읽은 길 64년
광주일보
광교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질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남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비엔빌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